

二、國寶指定

燕岐郡所在 三尊千佛在銘碑像은 앞서 文敎部에서 緊急히 假指定한 바 있었는데 이번 에 正式으로 指定이 可決되었다. (本誌 本文參照)

三、石窟庵 調査體制의 強化

앞으로의 設計와 調査가 本格的으로 進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體制의 強化가 要請되어있다.

- 1、現場의 工事務所를 設置할것
- 2、設計와 調査를 爲한 調査員이 常駐할것
- 3、詳細한 記錄을 남길것

- 4、細密한 今年度 調査計劃을 樹立할것
- 5、現地에서의 豫算의 圓滑한 運營을 圖謀할것

四、重要文化財의 海外流出의 防止

近來 우리나라 重要文化財가 外國人의 손을 通하여 海外에 流出하는 例가 많음에 비추어 金載元、黃壽永、秦弘燮 三氏를 選出하여 그 防止策을 講究하기로 되었다.

◎ 第二次 熊川 貝塚 發掘完了

高大에서는 八月八일부터 二十七日까지 慶南 昌原郡 熊川面 재미산(子馬山)貝塚의 發掘을 施行하였다. 一九五九年의 調査區域에 隣接하여 數個 트렌치를 새로이 마련하였는바 主要出土品으로서는 高坏坩堝等土器、骨製品、鐵器等이며 參加者는 金廷鶴教授 主管下에 崇實大 崔永喜教授 海士 禹炳熙 敎官이며 其外에 上記大學生과 延世大 鄭明鎭氏가 參加하였다고 한다.

◎ 文化財海外展示消息

和蘭하—그에서 展示를 終了한 우리나라 文化財는 지난 八月二十三日 和蘭을 떠나 다음 豫定地인 巴里에 安着하였다고 한다. 巴里의 開展은 十一月이다.

◎ 青銅遺物의 發見

全南 莞島郡 莞島邑 長佐里 長島에서 徑四五cm 高一二五cm 重二八斤의 火爐形 金屬具와 萬曆 癸未(宣祖 一六年 西紀一五八二) 十月銘이 있는 三穴銃筒의 發

見이 報告되었다. 銃筒은 長五四cm 口徑三·七cm 라 한다.

◎ 石塔材의 發見

文敎部에 報告된 바에 의하면 忠南 唐津郡 貞美面 壽堂里山에서 方形塔의 屋蓋石이 發見되었는바 塔身은 없고 五層塔으로 推定되었다고 한다. (層級形받침은 三段)

◎ 陶窯址의 發見

全南道에서 文敎部에 報告된 바에 의하면 光州 東北方約五十里되는 忠孝洞一帶에서 五個所의 陶窯址가 發見되었다 한다. 國立博物館 林泉學藝官은 最近이 附近을 調査하였는데 多數의 象嵌靑瓷 破片과 粉靑砂器 破片이 散在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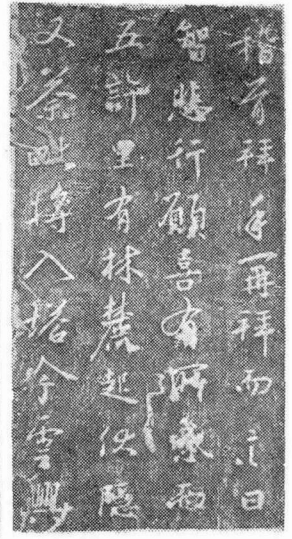
古揚 麟角寺碑

金 庠 基

拙藏 麟角寺碑(三國遺事의 撰者인 一然禪師碑) 楊本 一帖은 매우 오랜 것으로서 墨色이 蒼古하고 虫蝕도 자못 甚한 바 本來 龍門 尹光周先生(肅·英時人)의 舊藏에 屬하였던 것이다.

本帖은 十九葉으로 되었는데 每葉 四行(末尾의 葉은 二行) 每行 九字에(行에 따라서는 一字 或은 二字의 空欄이 있는) 字徑은 六分이요 書體는 行書로서 一然禪師의 門人인 竹虛가 勸命을 받들어 晉、右軍 王羲之의 書를 集字한 것이다. 우리나라 古碑 가운데에도 王羲之의 眞蹟을 傳한 것으로는 整藏寺碑와 本碑가 特히 뛰어난 일찍 부터 中國에 까지 이름이 높았던 것이다. ①

本帖에 收載된 碑文의 字數는 六五四字로서 月精寺 所藏 麟角寺碑寫本에 비하면 字數에 있어 그의 一部分에 지나지 못하나 現傳하는 本碑의 楊本으로는 가장 字數가 많은 것이다. ② 그런데 本楊과 月精寺



寫本을 對照하여 보면 本榻에 보이는 文句가 寫本文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한 둘에 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本榻에만 보이는 文句로서 『稽首拜手再拜而言曰』 『先師入滅 忽忽六七年』 등을 指摘할 수가 있는 것이다.

手再拜而言曰』이라던가 또는 『先師入滅 云云』의 文句는 閱漬의 撰文에 들어있을 性質의 것이 아니요 一然禪師의 門徒의 말인듯한 바 이러한 文句가 閱漬의 撰文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또한 當然한 일이라 할 것이다. 생각컨대 本榻에는 本來 月精寺 寫本에나 또는 金石總覽 類에 收錄되지 못한 어떠한 部分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의심되는 바이다. 아마도 碑陰에 立碑의 緣起를 적은 一然禪師의 門徒의 跋銘(安立事跡記)이 따로히 새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만일 이러한 臆測이 許容된다면 麟角寺碑에 있어 새로운 問題가 提起되는 셈이라 할 것이다.

麟角寺碑는 現在도 慶北 軍威의 麟角寺에 있는 바 碑身이 斷折, 毀損되고 刻字가 剝蝕, 磨泐되어 若干의 남아있는 글자도 거의 判讀이 어려울 程度이다. 本榻가 이와같이 된 것도 壬亂의 倭禍를 입은 까닭이니 拙藏 麟角寺碑榻의 龍門居士(尹光周)序에

世稱麟角碑 王右軍眞蹟 麟角 新羅寺也 右軍書 最稱三藏帖 而麟角獨

傳其眞 蓋新羅 於右軍 其代近(龍門이 本碑를 新羅의 것으로 본 것은 錯誤인) 得眞品 移於碑 故有名於世 餘癖於筆 求之勤 未得置諸心 每歎 二請邑嶺者 周歲 乃得一覽 宛然右軍之妙法近 所稱三藏帖 亦盡下風也 噫 壬辰之亂 島夷見此碑 曰不意右軍眞蹟 復覩于此 爭印之時 多火而 印什之地 其後剝落 略有字片 片亦剝缺 無眞而嗟乎 禍於倭 何其酷也 然其言曰 右軍眞蹟 抑亦知妙法者乎 此獨傳其眞者歟

崇禎紀元後辛巳(肅宗 二十七年)歲

龍門居士 書于澹然堂中 并序

라한 것으로서 本榻가 壬亂때에 倭兵에 依하여 倒什되어 字面의 剝落을 이르게 된 緣由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本榻을 가리켜 『此獨傳其眞者歟』라 한 것으로 보면 龍門도 이것을 壬亂以前の 完榻으로 보았던 듯하다.

註

① 劉喜海(號는 燕庭)의 海東金石苑 題辭에 『鑿藏麟角 碎金 集右軍之書 新羅鑿藏寺碑 高麗麟角寺碑 晉王右軍行書 頗具典型 俱集』이라 하였음

② 大東金石書 所收 本碑 榻本의 字數는 一九三이요 金石清玩 所收 本碑 榻本의 字數는 一六八이며 朝鮮金石總覽에 收錄된 것이 三六八個字이다. 劉燕庭의 海東金石苑 題辭에도 上記한 바와 같이 本碑가 收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淸·文宗 咸豐十年(哲宗十年 西紀一八六〇) 英佛聯合軍의 北京攻陷때에 燕庭의 原稿本이 遺失되어 겨우 前半部의 抄稿本 四卷만이 印行되었으므로 後半部에 屬한 本碑文도 漏落케 된 것이다. 그러므로 燕庭에게 傳해진 本碑의 榻本에 는 果然 몇 字가 缺하였는지 지금에 있어서는 알 길이 없다.

扶餘 軍守里出土 滑石製 母子曲玉

金 元 龍

지난 八月에 서울大學校文理大 史學科의 一學生이 扶餘에서 拾得하였